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2년 연속 1위
제주삼다수

제주 삼다수

믿고 마시는 물 제주삼다수, 인기 비결은 '청정 수질관리'

제주삼다수는 1998년 출시 이후 26년간 국내 생수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주의 청정 자연에서 생성되는 원수(原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바로 그 비결이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취수정 상부 국립공원에 인접된 지역부터 주변 지역의 토지까지 관리 중이다.



3시간 단위의 수질분석으로 잠재 오염원 차단

국내 유일 한라산 단일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제주삼다수는 엄격한 취수원 주변 토양 및 수질 관리를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 중이다. 최상의 품질 관리를 위해 취수원 주변에 축구장 100개 크기(약 72만㎡)의 토지를 매입했다. 그 결과 물리적 오염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며 수원지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 23개소의 토양 관측망을 포함한 총 106개의 관측망을 통해 미래 오염 가능성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2020년부터는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취수원 일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했다.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3시간 단위로 무작위 수질 분석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었다. 또한, 취수정 주변 14개소의 수질 관측점에서 매시간 지하수위와 수온, 전기전도도, 수소이온농도(pH)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주삼다수는 출시 이후 단 한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미국 FDA와 일본후생성 등 국제 공인기관의 엄격한 수질 검사 기준도 모두 충족했다. 이처럼 제주삼다수는 완벽한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우수한 수질과 물맛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테이스트 어워드' 수상

제주삼다수 수원지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청정 자연 속에 있다. 비가 많이 내려 제주삼다수의 근원이 되는 깨끗한 수질의 지하수가 풍부하게 생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 1,450m 높이에 스며든 빗물이 현무암과 천연 필터인 화산송이층을 거치며 18년 동안 정화된 물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불순물은 걸러지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바나듐, 실리카 등 건강에 좋은 천연 미네랄 성분은 녹아든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제주삼다수는 '2024 국제식품유품평화에서 국내 최초로 '다이아몬드 테이스트 어워드'를 수상하며 세계적인 물맛을 입증했다.

INTERVIEW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삼다수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생수 부문에서 12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주삼다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지해주시는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주의 청정지역에서 얻은 건강하고 좋은 물을 자연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삼다수 같은 물은
삼다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빈틈도
허락할 수 없어서

무려 106개의 관측망이
한 눈 팔지 않고 지키는 물

제주삼다수 모델

다이아몬드
7088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